

A Study on 'Religion in Human Life' According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yungyee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key aspects of the new 'Religion in Human Life' curriculum, which is a religious subject in the revised 2022 curriculum, in order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eachers and religious education researchers.

[Contents] 1) The direction and emphasis of the 2022 revised curriculum design and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rocedure of the 'Religion in Human Life' curriculum. 2) The key focus areas and content of 'Religion in Human Life'.

[Conclusions] 'Religion in Human Life' is to educate wise citizens through cultivating religious literacy as a liberal arts subject for career choice. The curriculum was designed to select and organize educational content related to learners' lives, maximize the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in the school curriculum, and realize the subjectivity and autonomy of curriculum operation. The educational content and achievement standards were reduced to enable learning in depth.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so that more students can choose and open religious subjects, which are passively practiced in private schools and left as null courses in public schools, within the system of revised curriculum and high school credit system. This is related to issues such as textbook accreditation and the educating for teachers who will be in charge of religious subjects in public schools.

[Keywords] Religion in human life, 2022 Revised curriculum,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literacy, Learning in depth, High school credit system

^{*} **Corresponding to** Kyungye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clara90@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 교과 교육 『삶과 종교』에 대한 고찰

김경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종교 교과인 「삶과 종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 고찰하여 「삶과 종교」를 실행할 교사와 종교교육 연구자들이 삶과 종교 교과의 목표와 내용 구성 및 교육과정 실천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과 설계의 강조점과 「삶과 종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절차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삶과 종교」 역점 사항과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결론] 「삶과 종교」는 진로 선택 교양 교과로서 종교 문해력 함양을 통해 지혜로운 시민을 교육하는 데 목표를 두는 교과이다.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실행 가능성 최대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과가 설계되었으며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 내용과 성취 기준이 축소되었다. 그동안 종립학교조차 소극적으로 실행하고, 공립학교에서는 영교육과정으로 남겨진 종교 교과가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라는 제도 안에서 더욱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과서 인정 문제와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과를 담당하게 될 교사 연수와 연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삶과 종교, 2022 개정 교육과정, 종교교육, 종교문해력, 깊이 있는 학습, 고교학점제

I. 서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이하 개정 교육과정]이 2022년 12월 22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및 국가교육위원회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고시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 이후,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에 이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4번째 개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중등학교의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다.¹⁾ 개정 교육과정이 역점을 두는 바는 “배움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비전하에 “미래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역량 및 기초소양 함양 교육 강화”, “학생의 자기주도성, 창의력과 인성을 키워주는 개별 맞춤형 교육 강화”, “학생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다(MOE,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의 종교 교과인 「종교학」은 「삶과 종교」로 교과 명칭이 변경되며 교과 성격과 내용 구성도 변화한다. 문서 형태의 법령이 뒷받침하는 국가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은 개정이 완료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교과의 교육과정이 문서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운영되지 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So, 2017: 54). 국가 교육과정에서도 학교 단위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세계 각국 교육개혁의 공통된 흐름이며 교사는 주어진 교육과정을 재현해서 실행하는 역할이 아니라 교육과정 사유가이자 교육과정 개발자여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Choi, Hu, & So, 2017: 121).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배경 지식, 교사의 전문성, 선정된 교과서의 내용, 전문적 자원의 이용 가능성,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의 거버넌스와 책무성 구조, 교부담 시험, 이용 가능한 재정 자원, 교실의 물리적 환경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So, 2017: 55).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에는 교육 내용과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이는 교과서 편찬과 교과서 승인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고등학교 교양 교과 영역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학」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종교 교과는 종립학교에서만 개설하는데 과목의 성격이 「종교학」이고, 종립학교 종교교과에 대한 불신과 편견 때문에 종립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이 발휘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Cho, 2016: 105). 또한 고등학교 수업 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교과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다. 이는 비단 「종교학」 교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고 타 교양 교과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어 온 문

1) 주요 적용 시기 2024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제였다. 2020년 한국철학교육학회에서 발표된 “고등학교 철학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 발표자인 윤상철은 ‘교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의 성격과 교과의 지식 구조에 대한 연구 성과를 근거로 교육과정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 교과 교육과정의 철학 결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교육과정 설계를 등치 시키는 인식 상의 오류 등이 극복되지 못한 채 교육과정이 설계되었음’을 지적하였다(Yoon, 2020: 20). 철학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제기한 문제임을 고려할 때, 다른 교양 과목 교육과정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는 교육과정과 간극이 컸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계획된 교육과정과 실행되는 교육과정 간의 간극은 불가피하다.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학교에서 다루는 맥락까지 상세화하여 제시하는 것은 과잉 처방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가 맥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융통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So, 2017: 56). 그러나 그 간극은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적 자율성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과정 개발에서 고려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종교 교과가 2025년부터는 「삶과 종교」라는 교과목으로 그 계획 틀이 마련되었으니 이에 대한 종교교육자, 종교교육학자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과정은 교사의 실행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이다(So, 2017: 333). 실행이란 가르치는 행위의 실재를 고려한 개념으로써 실제적인 사용 혹은 실제로 실천되고 경험된 교육과정이다(So, 2017: 333). 종교교육 연구자들의 학문적 탐구가 학교 종교교육이라는 교육 현장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학문 분야의 발전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삶과 종교」 교과를 운영할 교사와 종교교육 연구자가 교육과정 설계 의도와 교과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여 교과 운영과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는 개발 과정의 결과물인 문서로 제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데 유용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과 교육과정 문서는 총론의 문서체계 지침에 의해 개발된 결과만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설계 및 구성 원리나 교과별 고유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220). 결과물만 제시된 교육과정 문서는 어떤 의도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담고 있는 보고서와 워크숍 자료 그리고 관련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방향과 삶과 종교의 개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삶과 종교」 교육과정 배경과 개발 과정

1.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과 설계의 강조점

교과 교육과정은 해당 교과의 학문적 내용,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 지역사회와 환경으로부터 요구 등을 반영하여 생성되고 변화하며,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 교육과정 정책을 배경으로 한다. 「삶과 종교」도 개정 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의 비전과 역점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교육과정은 2021년 4월 20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을 위한 계획 발표와 함께 공식화되었다. 계획의 방향에는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이 담겼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바는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통합’, ‘학습 성찰’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1036-1050). 이는 「삶과 종교」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는 바이기도 한데 그 의미는 첫째, ‘학생의 삶과 연계한 학습’이란 학생이 학습 내용을 자기 지식화 혹은 체화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수의 핵심 내용 즉 교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삶 속에서 지속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Ohn, 2022: 2). 개정 교육과정을 주도한 학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이라는 키워드가 강조되었지만, 역량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고, “총론에 제시된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는 용어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역량 교육을 활동 중심 수업으로 오해하는 결과를 낳았다”(Ohn, 2022: 2)고 보았다. “교과에서 배우는 교과의 내용이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를 통합적으로 작동시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전이(transfer)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1036)고 보았다. 핵심 내용은 깊이 있는 학습과 연결되는 것이어서 「종교학」 교과보다 「삶과 종교」에서 교육 내용을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다.

둘째,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이란 학습자가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관련지어 습득하고 이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Ohn, 2022: 2). 그동안에도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을 강조하고 실행해 왔지만, 그것은 교사 주도로 교과를 통합해서 설계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통합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통합 단위이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활동들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그저 그 활동들에 참여만 하는 것을 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가?”(Ohn, 2022: 2)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생이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지식을 생성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교과 간 연계와

통합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에 걸쳐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강조점이기도 하므로 어떤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교과에서 배운 지식과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Ohn, 2022: 2).

셋째, 학습에 대한 성찰(혹은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은 메타 인지 즉 사고에 대한 사고 과정으로서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Ohn, 2022: 3). 이는 평생학습과 학습 내용을 다른 상황과 맥락에 전이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삶과 종교」 설계에서 이점은 특히 과정 기능 영역에서 반영되었으며, 교수학습 평가 부분에 반영하였다.

2. 「삶과 종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과 절차

종교 교과가 종립학교에서만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국가 교육과정에 종교 교과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제4차 교육과정(1981.12~1987.3)부터였다. 자유 선택 교과인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교육 가운데 하나로 포함되었으나 0~8단위로 배정되어 종립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채택할 여지가 없었다(Yoo, 2016: 395). 이후 제5차~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의 과목명은 ‘종교’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과 종교’였다. 이때 고등학교 교양 교과 과목명에는 생활이 첨가되어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으로 변경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타 교양 교과와 함께 다시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유지되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삶과 종교」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모든 교과 명칭에 ‘삶’이 동일하게 포함된 것은 아니다. 타 교양 교과는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인간과 경제활동 등으로 변경되었다. 교양 교과에서 학습자의 삶과 관련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은 설정하되 과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명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종교 교과가 「삶과 종교」로 변경된 것은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학습자의 삶과 연관된 깊이 있는 학습이 비전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학」 교과가 학습자의 삶과 관련을 맺은 교육과정, “고교생의 눈높이 수준”을 고려한 운영에는 한계가 있음이 선행연구(Cho, 2016: 117; Kim, 2016: 46)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왔던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는데 「삶과 종교」는 진로 선택 과목에 포함된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삶과 종교」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다. 더구나 교육, 심리, 경제와 달리 학생들이 종교와 관련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분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진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로 선택과 직업 선택은 구분되는 의미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행 학교 교육에서의 진로 교육에서 진로의 의미를 탐구하고 진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에 의하면 진로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는 균형 잡힌 시간관에 기초하여 새로운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길이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Mok & Chin, 2019: 1078-1086). 진로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볼 때, 「삶과 종교」는 진로 선택 교양 과목으로서 그 특성에 부합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로 선택’ 교과는 자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 탐구하는 교과인데, 삶과 종교는 바로 자기 자신과 삶 그리고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을 배우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진로 선택 교과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는 대학 진학 때 지원하게 될 전공과 관련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양 선택’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했다고 본다.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은 총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연구를 위한 제1차 워크숍은 2021년 12월 3일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교과 교육과정 연구책임자가 참석하였으며 총론의 주요 사항과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Jeong et al., 2022: 39). 2021년 12월 15일 교양·진로와 직업·보건 교육과정 연구진 과제 협의 및 자료 검토 이후, 2021년 12월 17일~18일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진 제2차 합동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주요 안건은 개별 교과에서 반영해야 할 개정의 주요 사항과 총론 방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였다. 2022년 2월 18일 제3차 합동 워크숍이 개최되어 1차 교과별 초안이 검토 논의되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요소인 학교급별과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요소, 디지털 AI 소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Jeong et al., 2022: 41). 제4차 워크숍은 4월 15일에 개최되었으며 2차 교과별 초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2022년 6월 24일~25일, 개정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의 5차 합동 워크숍이자 2차 정책 연구를 위한 워크숍 개최되었다. 이때 1차 정책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과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교수 학습 및 평가의 방향 진술 지침이 검토되었다. 워크북 자료집에는 1차 정책 연구로 마련된 「삶과 종교」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와 성취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다. 「삶과 종교」는 “삶과 연관된 종교의 내용과 의미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교양 차원에서 성찰하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과목”으로서 “종교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세계관에 미치는 영향,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지니는 의미와 가치 등을 간접적 체험을 포함하여 이해하고 성찰하여 종교를 바라보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로 되어 있었다. 종교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면서 종교가 개인, 공동체, 국가 사이에서 갈등과 배척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는 점과 종교의 자유 보장 및 종교 차별 예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내용 체계는 인간과 종교, 종교의 구성과 세계관,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현대사회와 종교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1차 연구에 대한 검토 의견과 함께 2차 연구에서 반영되어야 할 중점 사항

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교양 교과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 “비전공 교사도 가르칠 수 있는 내용 구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교양 교과에 적합한 내용 수준의 적절성 여부 집중 검토”, “민감한 용어와 전공학적인 내용의 일방적 기술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953).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검토 의견이 1차 시안에서 반영되지 않았음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삶과 종교」에서는 ‘종교와 젠더와 인권’이라는 용어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었으나 미반영되었음이 지적되었고, “영역명과 내용이 대학의 ‘종교학’과 매우 유사하며 고등학교 교양 교과로서 학생에게 주는 의미를 찾기 곤란”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대영역명이 ‘인간과 종교’, ‘종교의 구성’, ‘종교의 세계관’,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현대 사회와 종교’²⁾였는데 「삶과 종교」 1차 연구에서 대영역 명이 ‘인간과 종교’, ‘종교의 구성과 세계관’, ‘종교 전통과 문화유산’, ‘현대 사회와 종교’로 되어 있어서 변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삶과 종교」로 변경된 “교과명과 학생 교양 수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전면 변경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가 적시되어 있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953).

이러한 지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종교학」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던 사항이었다. 종교학 전반의 주요 주제와 세계 종교와 한국 종교의 주요 내용을 ‘공평’하게 다루려다 보니 너무 많은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Cho, 2016: 123). 많은 분량의 교육 내용은 가르치는 교사에게도 부담이 되고, 과목에 대해 학생들 흥미를 유지하는 데 장애가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적은 양을 깊이 있게 가르쳐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은 강조되었지만 「종교학」 교육과정은 종교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이 주로 반영되고 교과교육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점이 다시 지적되었고 1차 연구 결과 도출된 내용 구성에 대해 전면 변경을 위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차 연구는 새로운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의 참여를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는 개발 방향에 따라 대학교수 1인과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 2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집필진 외에도 5인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는데 자문위원으로는 기독교교육 전공의 대학 교수 1인, 종교교사 경력을 가진 중립학교 교장 1인, 불교, 개신교, 가톨릭학교 종교 담당 교사 3인으로 구성되었다. 자문단에 중립학교 종교교사와 기독교교육과 가톨릭교육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까닭은 현재 종교교과가 중립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발 전체 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의 교양 교과 연구팀, 각론 조정연구팀, 핵심교원연수 현장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종교적 관점에서 검토가 함께 수행되었다고 본다.

2차 연구진은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방향과 학습 내용 분량의 적정화, 교과의 성격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학 교과에는 ‘개별 종교들의 이해’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

규명 그리고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하는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안에서 구현되어야 함에 주목하였다. 과목명이 「삶과 종교」로 변경되었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의 삶과 관련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 강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했다. 고등학교에서 종교 교과를 실행하고 있는 연구진은 적절한 학습 내용의 분량과 학습자의 흥미와 교과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충실하게 반영하려 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종교 교과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동안 종교교과가 종립학교에서만 운영되어 왔으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종립학교 이외의 학교에서도 종교 교과가 개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하고 그렇다면 공립학교에서도 종교교과를 개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리고 이 경우 비전공자에 의해 본 교과가 운영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였다. 국가 통제하에 엄격하게 운영하는 교사 자격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에 따라 교양과목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 즉 상치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정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환경 교육의 경우 2009년 이후 환경교육 전공 교사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79%는 상치교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의 1.8%만이 환경 전담 교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Interagency Task Force, 2020: 2). 환경 과목에 대한 학생 선택이 줄어들어 신규 채용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렇다면 「삶과 종교」 또한 공립학교에서 개설되는 경우, 상치교사에 의해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상치교사가 종교 교과를 담당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공립학교 현실을 배제할 수는 없다.

연구진은 본 교과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고등학교 진로 선택 영역 교과라는 주어진 조건과 종립학교에서 종교 교과는 자격증을 가진 종교 교사에게 의해 전문적으로 실행된다는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교과 성격을 규정해야 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종립학교 종교교과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때 즉 일반 학교 종교교육 교육과정과 종립학교 종교교과 교육과정을 이원화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는 학교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학교에 하나의 교육과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연구진은 「삶과 종교」 교과에서 우선으로 고려할 점을 학습자가 이 과목에서 어떤 학습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교과의 성격을 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긍정적 측면 즉 종교적 성찰과 종교적 지혜 그리고 이를 개인 삶과 공동체에서 실천이라는 학습 경험을 통해 지혜로운 시민으로 기르는 교과로 성격을 규정하고 교과 내용과 성취 기준 그리고 교수학습 방향을 설정하였다.

III. 「삶과 종교」 교과 역점 사항과 주요 내용

1. 「삶과 종교」 교과 역점 사항

‘세계 종교 전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융합하고 전개된 전통의 표현과 신앙의 다양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며, 종교가 동시대와 역사에 걸쳐 인간 사회, 문화, 정치 영역에서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파악하지 못하는 종교 문맹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 문해력을 기르는 일의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Kim, 2020: 538). 종교 문맹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 문해력 교육은 종교교육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였고 학교 종교교육에서 종교 문해력(religious literacy) 함양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삶과 종교」는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종교적 주제와 사회 현상, 종교 전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교 문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과목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성격의 과목 설계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다. 「종교학」도 종교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종교교육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 교육이 전개된 과정을 보면 특히 「종교학」은 종교 문해력 함양에 대한 접근이 종교 간 갈등 예방에 치우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교육 목표에서는 학습자의 삶과 관련을 맺는 종교적 성찰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교학적 접근과 교과 개설과 관련한 운영상의 규제로 인해 종교교육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종교교육 유형은 종교에 관한 교육, 종교를 위한 교육, 종교적 교육으로 구분하여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제시한다. 이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종교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도 종교를 위한 교육, 종교적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종교를 위한 교육과 종교적 교육을 완전히 배제한 종교에 관한 교육도 가능하다.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안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종교학」에서 제시하는 교과 성격이 있고, 내용이 선정·조직되고, 교과서 내용과 구성도 종교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가톨릭 고등학교의 경우 「종교학」의 교과 성격과 종교 교과를 개설할 때 복수 교과를 개설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종교 교과를 개설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다.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논의가 달라진다. 학문적 배경이 종교학인지,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학인지에 따라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접근과 이해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교육 맥락에서는 그동안 종교교과 교육과정이 종교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종교현상을 이해하고 종교적 갈등을 예방하는 사회문화적 차원 즉 종교학적 종교교육이 강화되었음을 지적한다(Yoo, 2016: 404).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종교학」은 종교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진수를 외면한다고 비판하였다. 가톨릭교육의 맥락에서는 “종교교육은 인간이 지닌 영적 본성을 일깨우고 키워주며, 위대한 종교들로부터 영적 지혜를 얻도록 하여 보다 풍요로운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과목”이고, “종교적 이념과 목적에 따라 설립된 학교들에서 그 종교적 이념과 목적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강화하고 그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을 들어 「종교학」 교과가 “종교교육이 갖는 보다 본질적인 교육 목적”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Cho, 2016: 104-105).

한편 제7차 교육과정(1997.12~2007.2)이 적용되던 시기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기본 준거인 정교분리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기독교계 중등학교가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성지향적 종교수업 모형이 제안된 바 있다(Sohn, 2005: 75). 또한 7차 교육과정 종교 교과에 대한 성격에 대한 논의에서는 ‘아무리 학교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의 매개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는 종교교육의 측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종교적 경험과 실천도 종교교육의 주요한 교육적 결과로 볼 수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지식)가 종교교육의 중핵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 거론된 바 있다(Ko, 2001: 79). 이는 종교학적 교육과 신앙적 관점이 상호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편과 특수 내적 연관성을 지닌 관계라는 것이다(Kim, 201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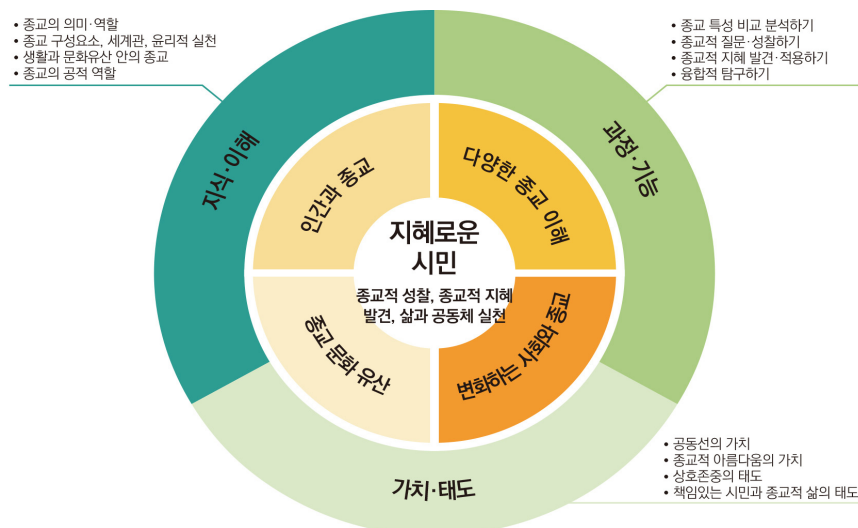
오늘날 문화에서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이해가 전반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삶과 종교」는 종교가 개인의 삶과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고, 종교적 가치와 유사 종교의 비종교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신뢰와 포용, 상호 존중 등의 종교적 가치이자 시민 사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삶과 종교」 설계의 출발은 종교의 영향을 인식하고 종교로부터 지혜를 얻는데 두었다. “종교가 인간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어떻게 서로 다른 종교를 상호 존중해야 하는지, 사회에서 공적 역할을 다하는 종교와 책임 있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가치로운 삶은 무엇인지, 종교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삶과 종교」는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접근보다 종교로부터 인간 및 학생 자신의 삶과 생활의 통찰 및 지혜를 경험하는 교과라는 점이 특징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종교적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 종교적, 지식과 가치의 통합 및 다양한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융합적 접근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 종교적 문제를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참여 활동을 높여 학습자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한편 개정 교육과정의 설계 원리는 우선적으로 핵심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교육 내

용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게 되어 있었다 (Ministry of Education, 2022: 12). ‘핵심 아이디어’란 교과 내 영역 수준에서 설정되는 빅 아이디어로서, 해당 영역을 아우르면서 해당 영역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을 의미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14).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교과의 각 영역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어떻게 진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핵심 아이디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 연구진이 작성한 핵심 아이디어는 각론 조정팀이 검토하였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위의 설계 원리를 적용하여 연구진이 구성한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구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삶과 종교」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구도(Jeong et al., 2022: 192)

[Figure 1] The Basic Structure of Curriculum Design for 「Religion in Human Life」

2. 「삶과 종교」 주요 내용

1) 성격과 목표

「삶과 종교」는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세계 시민 사회,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 기술 사회,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가치·태도 그리고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양 교과목의 한 영역이다.” 교양 교과목을 표현한 것은 현실적으로 종교 교과가 중립학교에서만 개설 운영되고 있지만 고교학점제의 선택 그리고 국가 교육과정 안에 담겨있다는 것은 모든 학교에 개설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개인과 사회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종교에 대해 배울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종교에 관한 교육이든, 종교적 교육이든 학습자들이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삶과 종교」를 통해 학습자들이 교과에서 경험하고 배양할 목표는 첫째,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종교적으로 성찰한다. 둘째,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 간의 차이를 알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일상의 삶과 사회 변화에 도움이 되는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고 익힌다. 셋째, 융합적 탐구를 통해 생활과 문화유산 안에 남겨진 종교적 특성과 종교적 아름다움을 발견·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넷째,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에 적용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포용성을 갖춘 시민 의식을 기른다. 목표 진술에서는 개별성과 다양성, 공공성과 책무성, 분권화와 자율화, 디지털 기반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되는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방향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교양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의 기본 방향인 첫째, 학생의 삶과 생활에 중점을 둔 교양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 함양 도모, 둘째, 학습자 주도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양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셋째, 학문의 논리적 체계보다는 학생의 삶과 생활에 연계된 실용적 지식 및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심으로 설계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Jeong et al., 2022: 132-133)을 반영하였다.

2)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삶과 종교」는 4개 영역, 14개의 성취 기준으로 구성하였고, 영역별 내용 요소는 <표 1>과 같다. 제1영역 ‘인간과 종교’에서는 종교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종교가 갖는 의미를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내용 선정이었다. 제2영역 ‘다양한 종교’는 기존 교육과정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원과 역사, 경전과 교리, 종교 공동체와 의례, 종교의 세계관과 윤리적 실천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내용으로 선정하였지만 다양한 종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종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다른 검토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종교를 담는 경우 교과 내용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특정 종교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 실행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종교를 제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점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 것이다. 교과서에는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 담겨야 하고, 인정 교과서 승인 과정에서 ‘다양한 종교’의 적합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3영역 ‘종교 문화 유산’에서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 스며들어 있는 종교의 영향을 탐구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고, 예술 작품 안에 담긴 종

<표 1> 「삶과 종교」 영역별 내용 요소

<Table 1> 「Religion in Human Life」 Content Elements by Domain

영역 1: 인간과 종교	
핵심 아이디어	인간은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변화를 추구한다. 종교에 대한 이해와 종교적 질문은 인류 역사에서 종교의 역할과 종교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 및 지혜를 내포하고 있다.
지식 · 이해	종교의 정의와 역할, 종교성과 영성,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교적 접근
과정 · 기능	삶의 문제에 대해 종교적으로 탐색하기, 종교적 통찰력과 지혜를 발견하기
가치 · 태도	종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 개인의 삶과 사회 현상에 대해 종교적 의미를 찾는 태도
영역 2: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핵심 아이디어	종교는 기원과 창시자, 역사가 있고 경전과 교리가 있다. 종교적 전통은 공동체와 의례를 통해 유지된다. 종교적 삶은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윤리적 실천을 통해 공동선(共同善)을 지향한다.
지식 · 이해	다양한 종교의 기원과 역사, 다양한 종교의 경전과 교리, 다양한 종교의 공동체와 의례, 다양한 종교의 세계관과 윤리적 실천
과정 · 기능	다양한 종교의 기원과 역사 탐색하기, 다양한 종교의 경전과 교리의 특징 비교 · 분석하기, 다양한 종교 공동체와 의례 비교 · 분석하기, 종교적 세계관과 윤리적 실천의 의미 발견하기
가치 · 태도	다양한 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다양한 종교로부터 삶의 지혜를 찾는 태도, 공동선(共同善)의 가치
영역 3: 종교 문화유산	
핵심 아이디어	종교 문화유산은 일상의 삶에 담긴 종교적 의미뿐 아니라 시대적으로 탁월한 예술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담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융합적 탐구는 존중과 상상력, 창의성 배양의 기반이 된다.
지식 · 이해	일상 생활 안의 종교 문화, 종교와 통과 의례, 종교와 예술
과정 · 기능	종교 문화유산에 대해 융합적으로 탐구하기, 통과 의례를 통한 삶의 모습 성찰하기, 일상, 삶의 주요 사건, 축제, 예술 작품 속 종교성 발견하기, 종교 문화유산에 담긴 아름다움 감상하기
가치 · 태도	종교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창의성을 키우는 태도, 종교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
영역 4: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	
핵심 아이디어	종교는 포용성과 상호 존중, 배려와 사랑, 정의와 평화 등의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종교는 보다 나은 사회의 형성과 시민성 함양에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다. 종교는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지식 · 이해	종교적 지혜와 가치,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한 종교의 역할과 책임,
과정 · 기능	종교적 덕목 탐색하기, 종교적 지혜 적용하기, 종교와 유사 종교 비교 · 분석하기
가치 · 태도	현대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공동선’의 가치로 접근하는 태도,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추고 실천하는 태도

교적 상상력과 그 의미들을 고찰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상상력 배양과 융합적 접근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제4영역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에서는 종교의 공적 역할과 종교가 지향하는 공동선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오늘날 공적 영역에서 종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꺼려하고, 종교 문맹이 증대됨에 따라 종교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있다. 종교가 수행해온 공적 역할과 책임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온 경향이 크다. 인간은 한 개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기도 하다. 저명한 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룹은 개인으로서 성장과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장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Groome, Cho et al., trans., 2021: 272). 본 교과 또한 종교교육을 통해 개인으로서 성장뿐 아니라 공동체 일원이자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양해야 할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참다운 종교를 식별함에 있어서 개별 종교 공동체만을 위함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영역별 성취 기준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성취 기준의 내용이 상세하여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서 구현되어야 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 해설 및 성취 기준 적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영역별로 제시된 성취기준 가운데, 교과서 개발 및 학교 현장에서 오해 및 혼동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나 강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 진술한다. 이때 성취기준 해설은 성취기준

<표 2> 「삶과 종교」 영역별 성취 기준

<Table 2> 「Religion in Human Life」 Achievement Criteria by Domain

영역	성취 기준
인간과 종교	1 다양한 인간의 삶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 종교성과 영성 이해. 2 종교적인 질문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 탐색. 3 사회적 문제를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종교적 통찰과 지혜를 삶과 일상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태도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1 다양한 종교의 기원과 창시자, 역사적 형성 과정을 탐색. 2 다양한 종교의 경전과 전통, 교리와 문화, 공동체와 의례 비교 및 특징 분석. 3 다양한 종교의 세계관과 윤리적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 함양.
종교문화유산	1 일상생활과 통과 의례에 담긴 종교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삶의 과정을 통과 의례를 중심으로 성찰. 2 음악, 미술, 건축, 문학 영역에서 종교적 문화유산을 탐구하고 아름다움 감상. 3 다양한 종교 문화유산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특징을 분석하며,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존중하는 마음 함양. 4 다양한 분야의 종교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이를 창의적이고 융합적으로 표현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	1 다양한 종교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탐구하고 포용성과 상호 존중이라는 공통점을 발견. 2 종교가 추구하는 공동의 선(善)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시민 의식과 태도 함양. 3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종교계가 제시하는 여러 해법을 이해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연대감과 책임감 함양. 4 종교와 유사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관점을 배양.

의 의미나 취지에 초점을 두어 진술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17). 지식·이해, 과정·기술, 가치·태도 영역을 고려한 14가지 성취 기준은 <표 2>와 같다.

3) 교수 학습 및 평가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서 강조하는 것은 깊이 있는 학습, 유의미 학습, 학습자 맞춤형, 자기주도적 학습, 디지털 교육 환경 고려, 지식 적용과 문제해결력 함양, 교과 내외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바탕으로 하는 학습경험의 통합적 접근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24). 이는 학습자가 학습 과정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교수학습 과정이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사실 종교 교과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수업 운영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다. 입시 중심의 교육 환경하에서 지필 시험이 없고, 거의 모든 학생에게는 전공 선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 관점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 교사들은 학습자의 삶과 관련하여 교과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 학습 방향에서는 교실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으면서도 특히 종교 교과 운영에 적합한 사항들을 담았다.

또한 본 교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는 교육 내용뿐 아니라 교수 방법과 학습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보았다. 자문 의견에서도 종교에 관한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종교를 알고,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종교적 경험과 삶을 존중하고, 종교적 가치와 유사 종교의 비종교적 측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강조되었기에 이를 교수학습 방법 안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은 종교에 관한 교육을 종교적 교육으로 할 수 있는,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과로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문제에 대한 종교적 질문과 이해를 통해 종교로부터 얻은 통찰과 지혜를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수업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수업 주제를 삶에서 출발할 것을 강조했다. 학습자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청소년기 학습자들의 관심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주제를 찾을 것을 제안했다. 둘째,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참여하는 방식인 사례 조사, 학습자의 기억과 상상력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타종교에 대한 존중,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습자 모두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넷째, 질문이 이끄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고,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점을 강조했다. 다섯째, 상상력을 발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수업의 자료, 물리적 공간 등을 언급하였다. 여섯째, 종교적 차원이 갖는 분명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업 중 활용하는 사례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다.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Religion Subject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2022 Revised Curriculum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비고
과목명	종교학	「삶과 종교」	과목명 변경
성격	- 인간과 종교의 관계,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문화, 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과목 - 종교와 윤리, 종교 간 차이와 차별 등을 탐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과목 - 종교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 등에 기여	- 종교로부터 삶의 지혜와 가치를 함양하도록 설계 - 삶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의미와 다양한 종교를 탐구함으로써 인간과 종교 문화를 이해하고 종교적 지혜를 배우는 과목 - 종교로부터 배운 상호존중과 포용, 인간-자연 및 개인-공동체의 관계 맺음의 가치와 실천하는 태도 함양 교과목	- 개인의 삶과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 - 삶과의 연계성 강화
목표	- 인간과 종교의 관련성 이해 - 종교의 구성 요소 이해 - 종교의 세계관 이해 - 세계와 한국의 종교사 이해 - 현대사회와 종교의 연관성 이해 - 개별 종교들이 제시하는 윤리적 태도 성찰	- 삶에서 종교의 의미를 이해하여 삶과 사회의 문제에 대한 종교적 성찰 - 다양한 종교의 차이를 상호 존중하며, 종교적 지혜 발견 - 삶과 문화유산에 남겨진 종교적 아름다움 발견 및 창의력 육성 - 종교로부터 배운 지혜를 삶과 사회 변화에 적용과 포용성 육성	- 종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보다는 삶과의 연계성과 의미 강조 -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종교적 지혜 배움 - 종교문해력 함양에 초점
내용 체계	6개 영역 [인간과 종교, 종교의 구성, 종교의 세계관, 종교전통과 문화유산, 현대 사회와 종교, 개별 종교들의 이해] - 각 영역에 따른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기능 제시	4개 영역 [인간과 종교, 다양한 종교에 대한 이해, 종교 문화유산, 변화하는 사회와 종교] - 각 영역에 따른 핵심 아이디어, 범주, 내용 요소 제시 -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범주별로 제시	- 유사 영역 통합과 삭제 통해 영역 수 축소 - 미래 사회와의 연계성 추가 - 종교문해력 함양 위한 내용 구성 - 종교의 공적 역할 명시
성취 기준	6개 영역별 총 41개 성취 기준 - 각 영역 성취기준별로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 해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으로 구성	4개 영역별 총 14개 성취 기준 - 각 영역 성취 기준별로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으로 구성	- 성취 기준 14개로 축소 적정화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촉진 차원에서 영역 차원의 학습 요소 삭제, 성취 기준 해설 통합 제시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 비교 (계속)

<Table 3> Comparison of Religion Subject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the 2022 Revised Curriculum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비고
과목명	종교학	「삶과 종교」	과목명 변경
교수·학습	시청각 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종교 자료를 활용하고 종교학에 대한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 대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며, 종교 관련 학습 주제를 스스로 심화할 수 있도록 세미나 수업 방식 등을 제시	- 삶에 대한 종교적 성찰을 하도록 삶으로부터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 방식 명시 - 학습 과정에서 삶과 삶의 통합에 역점을 둠	- 학습자의 삶과 관심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수·학습 소재 강조 -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 강조 - 학습자 간의 견해 차이에 대한 고려 등 추가
평가	평가에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논술식을 활용하며, 사례 수집과 분석,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태도 평가	평가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간의 견해의 차이를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하며, 다양한 활동 및 표현물, 수업 참여도를 평가에 활용할 것을 제시	- 평가 또한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게 운영할 것을 강조 - 다양한 활동 자료를 평가에 활용할 것 강조

학교 현장에서 이미 본 교과는 일반 교과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왔지만 평가의 방향에서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을 위한 평가를 지향하는 방향을 보다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 운영에서 학습자가 경험한 다양한 자료들을 평가에 반영할 것을 제안에 포함하였다.

IV. 요약 및 논의

교육과정에 편재된 교과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의 관심과 무관심 정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교과는 종교교과가 유일할 것이다. 종립학교에서는 학교 설립 이념과 관련한 중요 교과로 간주하고, 공립학교에서는 개설하지 않아도 되는 무관심의 영역 또는 영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편, 어느 연구진도 연구 과정에 자신의 학문적 교육적 경험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듯이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는 연구진의 관점이 작용하게 된다. 이점은 종교 교과 개발 과정에서도 그러하다. 종교 교과는 교육과정 연구진의 학문적 배경, 종교에 대한 이해와 경험 그리고 교사로서 교육 실행 경험 등에 따라 교과 성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내용 선정과 조직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관점에 편향되지 않는 보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과정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야 하고 속의

과정이 필요하다.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도 그런 절차가 포함되었다. 자문위원, 시안 검토 워크숍, 현장 적합성 검토, 공청회, 국민참여소통채널, 교육과정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 등이 그런 절차에 포함된다. 또한 연구진은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종교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와 학회와 관련 단체에서 논의되어 온 의견들을 확인하는 과정도 거친다.

즉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은 교과에 담겨야 할 지식을 선정하고 구조화함에 있어서 전체 학교 교육과정과 타교과와의 연계성 안에서 구현되어야 하는 교육과정의 비전과 역점 사항, 종교 교과에 대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딜레마적 논의 그리고 종교 교과 수업의 특성, 종교 교과가 실행되는 한국의 교육 현실, 향후 전개된 고교학점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했다. 연구진이 초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지만 이들은 서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첫째, 「삶과 종교」를 통해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종교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종교교육에 대한 소극적 접근 즉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둘째,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한다. 즉 종교에 대한 이해가 자신의 삶과 세상을 조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경험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에서 「삶과 종교」 실행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되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화한다. 넷째, 교양 교과로서 성격이 내용에 반영되도록 하고, 상치교사에 의해 교과가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 물론 종교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과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치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앞서 밝힌 본 교과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되는 접근이었다. 다섯째,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최소화한다. 여섯째, 학교 현장의 이수 단위를 고려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선정한다. 이를 통해 계획된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도를 교육과정 문서에 담았으나 수업 설계 과정에서 그 의도가 어떻게 이해될지, 공감을 얻을지는 알 수 없다. 교수학습과정의 주체인 교수자와 학습자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은 문서와 제도라는 형식으로 마무리 된 것일뿐, 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인 2025년까지는 본 교과에 대한 종교 교사, 종교교육학자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문제는 교과서 개발에서 다양한 종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종교교사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상치교사들이 담당하는 경우 교과의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의 유무는 과목을 개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동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승인받은 종교학 교과서는 1종에 불과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한 교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니 보다 다양한 종교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도록 교과서 심의에서도 「삶과 종교」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교과에서는 종교에 관해 배우는 종교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종교로부터 배움과 바른 이해를 통해 지혜로운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상처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교과 운영은 지식·이해의 차원에 머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전공 교사가 본 교과를 담당하는 경우 이들을 위한 교사 연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삶과 종교」 교육과정이 공립학교 영교육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종립학교조차 개설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종교교육과 관련한 규제적 상황과 인식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종교교육에 대한 소극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종교 안에 축적된 그리고 인류 문화유산 안에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학습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ferences

- Cho, Y. K. (2016). 2015 Revised Curriculum in Religious Studies and Religious Education in the Catholic Second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103-128.
- Choi, Y., Hu Y., & So K. H. (2017). Reconceptualizing Teacher Autonomy in Discussions on Curricular Autonomy Policy: Michel Foucault's "Care for the Self".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2), 119-141.
- Groome, Thomas. *Educating for Life: A comprehensive philosophy but more a spirituality that can inspire every instance of Catholic education, in home, parish program, and school.*
- 조영관, 김경이, 우정원 옮김 (2021). *생명을 위한 교육: 모든 교사와 부모를 위한 가톨릭의 영적 비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Kim, G. S. (2016). Issue and Task on Subject Matter Education of "Religion" in the Revise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of Korea in 2015.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1, 31-51.
- Kim, H. C. (2020). Image and Religion: A Preface of Religious Visual Literacy.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8, 537-565.
- Ko, J. H. (2001). A Study of Buddhistic Education in Secondary level at the 7th Curriculum

- Revis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3, 63-81.
- Mok, J. Y. & Chin, Y. E. (2019).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areer Education through The Meaning of 'Career'.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1073-1096.
- Sohn, W. Y. (2005). A Study on Development of Religious Instruction Model for Christian High School.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2, 49-82.
- Yoo, S. H. (2016). Discussion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from a Christian-education perspective: Focused on religion curriculum in Korean schools. *Mission and Theology*, 40, 389-419.
- Yoon, S. C. (2020). A Critical Discussion of the Revised 2015 High School Philosophy Curriculum in Korea. Proceedings of th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hilosophy Education, October 2020. *Korean Association of Philosophy Education*, 1-23.
- 소경희 (2017).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Translated in English) So, K. H. (2017). *Understanding Curriculum*. Seoul: Education Science Press.
- 온정덕 (2022). 역량과 주도성을 기르는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서울교육. 2022 특별호 겨울호(249호) (Translated in English) Ohn, J. D. (2022). Revised Curriculum for 2022: Fostering Competencies and Learner Agency. *Seoul Education, 2022 Special Edition, Winter*, 249. Retrieved 2023.4.15. from <https://webzine-serii.re.kr/category/2022/2022winter/>
- 정영근, 김영은, 이수정, 허예지, 이지애, 안광복, 권희정, 여영서, 윤식혁, 박진, 김빛나, 고효상, 박종배, 노병태, 김경이, 우수호, 김덕진, 장경호, 박철용, 김혜정, 박정하, 윤상철 (2022). 2022 개정 교양 교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진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ranslated in English) Jeong, Y. K., Kim, Y. E., Lee, S. J., Hu, Y. J., Lee, J. A., Ahn, K. B., Kwon, H. J., Yeo, Y. S., Yoon, S. H., Park, J., Kim, B. N., Ko, H. S., Park, J. B., No, B. T., Kim, K. Y., Woo, S. H., Kim, D. J., Jang, K. H., Park, C. Y., Kim, H. J., Park, J. H., & Yoon, S. C. (2022). *2022 Revised Liberal Arts Education Curriculum Draft(Final Version) Development Study*.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관계부처합동 (2020).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국민환경역량 제고 방안. 2020.5.22. 보고 자료. (Translated in English) Interagency Task Force (2020). Strategies for enhancing national environmental capacity for promoting green transition. Report. May 22, 2020. Retrieved 2023. 4.10. from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200251401
-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2022.6.24.~6.25. (Translated in

-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2022 Revised Curriculum Expert Workshop Materials. 2022.6.24.~6.25
- 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2022). 2022 Revised Curriculum. Retrieved 2023.4.15. from <https://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 2021.11.24. 교육부 보도자료.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2022 Revised Curriculum General Summary Key points. 2021.11.24. Retrieved 2023.4.1.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2.12.22.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Education press release, Confirmation of the 2022 Revis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an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2022.12.22. Retrieved 2023.4.1.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4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